

전주시, 세원발굴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상반기 25억원 추정·하반기 35억원 달성 박차

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세원 제로화를 위해 '하반기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세원발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로 25억원을 추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5억원 세원을 발굴하는데

박차를 기한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사례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법인장부에 표기하지 않아 추후에 기장하여 누락으로 추정 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식 50%이상 초과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감면

물건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한 경우, 재산분 및 종업원 분 주민세, 재산세 등을 소액으로 소홀히 여겨 누락 한 경우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재정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므로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득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감면조건이 소멸될 때에는 자진신고하여 가산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0억원이상 취득법인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1천만원 이상 감면 물건에 대하여 현지 전수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외의 취약분야를 조사하고 부동산 등 취득비용 사전안내로 신고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효자1동,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26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및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가구의 집중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8월 말까지를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50여 위기 예상 가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생단체 연합이 함께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발굴가구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공적복지제도 신청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가 열린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지전거룡장에서 남자 고등부 제의 경기 결승선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합을 벌이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다.

순창공무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

순창군 공무원이 술에 취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준강간 혐의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위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와 잠자리를 가진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잠에서 깬 B씨가 다음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 남아 있던 체액이 누구 것인지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뉴스

생활 속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전주시 35개동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생활 속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가 순회상담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생긴 취약계층 등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및 서

민에게 1차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아람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집을 나가 두 손자를 떠안아 힘들게 사는 조손가정에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모의 가족관계단절 신청으로 조부모를 미성년자인 두 손자의 법률 후견인으로 하여 지역복지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을 지원받게 해주었다.

또한, 그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인 통합사례회의 '희망보드믹'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하고 지역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에도 꾸준히 방문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난 3년

째 운영되고 있는 법률홈닥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단비 역할을 하며 수범사례가 늘고 있어 찾아가는 전주형 동네복지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지난 2015년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듬해인 2016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총 55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법률홈닥터 사무실(063-281-0309) 또는 시 생활복지과(063-281-50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무더위 이겨내는데 도움 되었으면"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우아2동주민센터에 선풍기 50대 전달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박정근)은 지난 26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주민센터에 선풍기 5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풍기는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완산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직접 대상자 집에 방문해 전달,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풍기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선풍기가 고장 나서 더웠는데 선풍기를 선물 받아 너무 기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주완산로타리클럽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나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기욱 우아2동장은 "매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 박정근 회장님과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무더위에 취약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하는 로타리 기본에 충실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전개, 연탄배달사업, 장학사업, 국제봉사사업, 사회봉사사업 등을 펼쳐져 작년에도 우아2동에 1,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증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신규농업인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유도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9월 14일까지 신규농업인 위한 영농교육

전주시가 신규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을 통해 전주지역 농촌동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신규농업인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전주시 청년이나 은퇴 후 귀농귀촌을 원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영농기술교육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개설됐다.

신규농업인 과정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주시민과 기초영농기술 교육

을 받기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총 8강의 일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교육 참석자들은 지난 20일 '성공적인 귀농귀촌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특강에서는 작물재배의 기본이 되는 토양관리와 작물생리, 병해충 방제, 발작물·채소·과수 등 작목별 재배교육, 농기계 사용방법 습득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받았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과 실질적인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